

發掘 高句麗

-漢江流域의 高句麗 堡壘-

최종택(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고고학)

1. 머리말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발원한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국가를 이룩하였고, 百濟와 新羅에 비해 한 발 앞서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방어를 유리한 지리적 이점과 강력한 군사력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고구려라는 명칭의 ‘高’는 한자의 뜻에 대한 미칭으로 덧붙인 것이며, ‘句麗’는 城·邑·谷 등을 의미하는 ‘忽(Khor)’ 또는 ‘골(Kor)’ 및 ‘溝瀆(Kuru)’ 등을 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원전 2세기 중엽 압록강 중류 일대의 냇가나 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된 ‘那’라 불리는 지역정치집단에서 출발한 고구려는 이들 ‘나’를 통합하고 중국의 漢郡縣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정치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기원 후 2세기부터 4세기 전반에 이르 동안 중앙의 관료조직이 발달하고 왕은 이들 관료들을 초월한 ‘太王’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4세기 후반에서 6세기에 걸쳐 고구려의 영역은 요동지방과 부여지방, 한반도 중남부 일대로 크게 확장되었으며,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4강의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에 이르러 내적인 분열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고구려는 점차 와해의 길을 걷게 되었고, 668년 마침내 羅唐 연합군에 의해 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구려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고구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지 1,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국토의 분단과 이념의 대립 등으로 인해 고구려 고고학 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고구려 고고학 연구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 集安地方을 중심으로 고구려유적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자료의 입수가 용이해진 까닭에 국내의 고구려 고고학 연구도 다소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 1990년대에 들어서 漢江下流域의 서울지방에서 여러 개소의 고구려 군사유적(堡壘)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류와 무기류 및 마구류가 출토되어 이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한강유역에서 이루어진 고구려유적의 조사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우선 한강유역 고구려유적 연구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고구려의 남하과정과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이들 유적의 성격과 특성을 고찰하는 순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이 글은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들을 위한 공개강의 자료로 작성된 것이며, 본문 중 일부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다른 글

에서 옮긴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 연구사

한강유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조사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1977년 九宜洞堡壘가 발굴되었지만, 당시에는 유적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유보하고 잠정적으로 百濟古墳으로 보고하였었다. 한강유역에서 고구려 유물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당시 百濟의 주요 居城의 하나인 夢村土城의 동남지구를 발굴한 조사단은 유물정리 과정에서 廣口長頸四耳甕(四耳長頸甕) 1점을 포함한 고구려토기를 복원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군의 토기가 形態나 胎土에 있어서 九宜洞遺蹟에서 출토된 토기와 같은 유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九宜洞類型’으로 명명하고 백제토기와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다음 해의 몽촌토성 서남지구의 발굴조사에서는 고구려식 濼突遺構 1기와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이를 ‘九宜洞類型’ 대신 ‘高句麗土器’로 보고하였다.

그 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의동유적의 성격을 高句麗의 軍事遺蹟(堡壘)¹⁾으로 해석하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구의동유적 종합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1994년에는 峨嵯山 일원의 지표조사를 통하여 15개소의 高句麗 堡壘가 조사·보고되었으며, 한강유역 출토 고구려토기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최근 한강유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峨嵯山의 第4堡壘가 발굴되어 고구려군이 주둔하였던 건물지와 성벽 등의 구조물과 다량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아차산 제4보루는 상기한 구의동보루와 비슷한 구조의 군사유적이거나, 규모에 있어서 10배가 넘는 등 당시 군사들의 編制나 配置 등 전쟁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확보되었다.

한강유역에서의 이러한 연구성과와 더불어 1998년에는 아차산에서 임진강유역으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陽州郡 일대에서도 28개소의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조사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고구려의 堡壘들로 확인되었다. 또한, 臨津江流域에서도 관방유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조사단에 의해서 京畿道 坡州郡과 漣川郡의 관방유적이 조사되었으며, 京畿道 抱川郡과 金浦市와 江原道 鐵原郡 일대의 관방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단국대학교 사학과와 주관 하에 抱川의 半月山城이 발굴조사되어 산성의 규모와 축조시기 및 성격의 일단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성과에 힘입어 포천군 내에 위치한 山城의 배치와 방어체계 및 영속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抱川 半月山城이 高句麗 馬忽郡의 治所이며, 大田里山城과 城洞

1) 堡壘는 둑이나 제방과 같은 성채를 가진 작은 규모의 군사시설을 말하며, 기존의 글에서는 이를 堡壘城으로 표현하였으나, 堡壘라는 말 자체에 城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 本稿에서는 堡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堡壘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의된 바가 없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堡壘의 경우 둘레가 300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뒤에서 詳述하겠지만 대체로 둘레가 600m 이하인 경우 堡壘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里山城은 그에 딸린 縣治所로 비정하고, 고구려군의 남하 통로에 대한 卓見이 제시되었다. 또한, 필자에 의해서 고고학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峨嵯山 第4堡壘와 九宜洞堡壘의 고구려 군대 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고, 한강유역 및 임진강유역 그리고 북한지역과 중국의 집안지방일대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에 대한 대략적인 편년안이 제시되었다. 그밖에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구진에 의해서 漣川의 瓠蘆古壘와 주변의 관방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한강이북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관방유적의 기본적인 성격과 방어체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고구려의 남진

4~5세기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한국사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동아시아 주변 제국들 간의 정치질서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대외팽창이 중국계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여 백제와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외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초기 고구려는 중국의 遼東·遼西地方과 부여지방으로의 영토확장에 주력하였다. 그 후 4세기 초반 황해도 일원의 樂浪郡과 帶方郡을 축출한 고구려는 5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남하를 시작하여 475년에는 백제의 漢城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된다. 고구려 남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초기 서북방면으로 진출을 통해 습득한 중국이나 새외민족의 문화를 소화하여 한반도 중심의 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민족 고대문화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구려는 건국과 더불어 주변의 여러 정치체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성장하였다. 고구려의 영역 확장은 크게 세시기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초기 고구려 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영역확장으로 주로 주변의 작은 부족을 복속시키고 한군현의 하나인 玄菟郡을 축출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두 번째는 확립된 왕권을 바탕으로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로 美川王에서 廣開土大王代에 이르는 시기이다. 특히 광개토대왕대에 이르러서는 민족의식의 태동과 더불어 통일적 천하관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長壽王代에 해당되는데, 고구려의 주된 영토확장 방향이 남쪽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고구려가 영토확장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게 된 배경은 다른 무엇보다도 요동지방을 놓고 대치하고 있던 북중국의 정세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4세기초 요동지방에 대한 晉의 행정력이 약화되자 慕容氏가 요동지방을 차지하고 中原으로의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4세기 전반 고구려도 요동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으며, 後趙에 사신을 보내어 양국 사이에 있는 모용씨에 대한 협공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모용씨의 前燕은 중원으로의 진출을 위해 고구려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故國原王 9년(339)과 12년에 전연왕 慕容皝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아 국도 丸都城이 함락되고 선왕(미천왕)의 묘가 파헤쳐졌으며, 왕모와 왕비가 포로로 잡혀가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요동진출 노력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이후 40여 년간 고구려는 요동지방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고구려는 남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4세기초 중국의 군현을 축출하고 간접적인 지배체제하에 두었던 황해도와 한강유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남진과 한강유역 진출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4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로 고국원왕대에서 광개토대왕 즉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이전에 고구려는 이미 낙랑과 대방을 축출하는 등 남진을 시도하였지만, 서북방에서의 전연과의 교전으로 인하여 백제와의 교전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고국원왕 39년(369)에는 2만의 병사를 이끌고 雉壤(황해도 백천)에서 백제와 싸웠으나 패배하였으며, 2년 후인 371년에는 백제 近肖古王의 공격을 받아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등 백제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겪고 있다. 이 시기의 접전지역은 치양에서 水谷城(新溪)을 잇는 淇河(禮成江)선으로 백제도 靑木嶺(개성 부근)을 중심으로 관방을 설치하여 대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양국간의 국경은 대동강에서 예성강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한강유역 진출의 두 번째 단계는 4세기말에서 5세기 후반에 이르는 시기로 약 1세기 동안의 이 기간에 양국은 예성강과 임진강유역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즉, 392년 즉위한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石峴城 등 10성을 빼앗았으며, 임진강 하구의 關彌城을 함락시켰다. 이 후 양국은 관미성과 수곡성(新溪), 패하(禮成江), 청목령(개성 부근), 漢山北柵 등에서 계속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가고 있으며, 長壽王 67년(475)에는 백제의 한성이 함락되고 고구려는 드디어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로부터 한강유역은 고구려의 영역이 되며, 고구려의 점유기간은 羅濟 연합군에 의해 한강유역을 백제가 되찾는 551년까지의 76년간이 된다.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임진강 이북 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 황해도 황주에서 수집된 백제토기 일괄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들 토기류의 연대는 4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당시 상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문헌기록과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볼 때 4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는 고구려가 남진을 시도하지만 백제의 거센 반발로 예성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황주출토 백제토기 예를 통하여 볼 때 상황은 더욱 고구려에게 불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임진강유역에서 한강유역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최근 많은 고구려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임진강유역에는 강 남북으로 여러 곳의 산성과 토성이 마주보고 있으며, 이 중 강 북안에 위치한 瓠蘆古壘와 堂浦城, 無等里城, 隱垞里城 등 고구려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양주군 일대에서도 남북으로 연결되는 고구려 보루들이 확인되었으며, 한강유역에는 구의동보루와 아차산 제4보루, 시루봉보루 등이 발굴 조사되어 고구려 군사요새의 면면이 자세히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엽경에 걸친 고구려의 남진은 임진강유역과 한강유역에 걸친 두 개의 방어선을 뚫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5세기 후반에는 한강을 건너 한강 남안의 한성백제 중심지를 차지하게 된다. 고구려의 한성 점령은 夢村土城에서 출토되는 고구려토기의 존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廣口長頸四耳甕이나 圓筒形三足器 등의 특수한 형태의 토기의 존재나 고구려식의 온돌건물지 등의 존재를 통해 볼 때 몽촌토성에는 구의동이나 아차산 제4보루에 주둔하던 군사보다 비중있는 인물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한강유역의 고구려보루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堡壘 중 지상에서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고 고구려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모두 20여 개소로 이 중 3개소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구조와 성격이 이미 밝혀져 있다. 이들 보루의 분포를 보면 한강 이북의 峨嵯山과 龍馬山 능선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것과 한강북안의 평지구릉상에 조성된 것의 두 유형이 있으나 이들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차산과 용마산의 보루들은 능선상의 작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400~500m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보루들 사이에는 어떠한 유형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의동보루 발굴 당시 유적 아래쪽 능선에 木柵 구덩이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 보루는 목책 등의 시설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차산 3보루와 아차산 4보루 사이와 같이 일부 보루들 사이에는 소규모의 석축이 남아 있어서 석축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보루가 위치한 지점의 해발고도는 100m 안팎에서 300m가 넘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변의 평지와 한강이남 지역이 잘 조망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들 보루들은 아차산과 용마산 줄기를 따라 2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아차산과 용마산이 합쳐지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한 줄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보루가 2열로 배치된 까닭은 이들 보루의 기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차산 보루에서는 용마산 서쪽 중랑천변 일대의 평지가 조망되지 않으며, 반대로 용마산 보루에서는 아차산 동쪽 왕숙천변의 평지가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루를 2열로 배치한 까닭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차산 동서 양측의 통로를 조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차산 능선상의 보루는 한강변의 평지 구릉상에 위치한 보루들과 연결되는데, 잠실대교 북단의 구의동에는 1977년에 조사된 구의동보루가 위치해 있다. 또 구의동보루 서쪽의 한강변인 자양동(舊 蘩嶋面 栗里)에서도 고구려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중랑천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입구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보루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한강변에 위치한 보루는 해발 50m 안팎의 낮은 독립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데, 해발고도는 아차산 능선에 배치된 보루에 비해 낮으나 주변이 평지이므로 주변을 조망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아차산 일원 고구려보루의 입지와 분포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아차산 일원의 보루는 주변의 조망이 유리한 능선상의 봉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강변에 위치한 보루들 역시 해발고도는 낮으나 주변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는 이들 보루는 크게 아차산과 용마산의 정상을 따라 2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한강변의 독립구릉상의 보루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차산 일원의 보루들은 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차산 줄기 좌우의 평지 통로를 관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한강 북안의 독립구릉상의 보루들은 바로 한강 이남의 백제지역을 조망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1) 몽촌토성내 고구려유적

夢村土城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토성으로 百濟 漢城時期(B.C.18~ A.D.475)의 重要 居城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몽촌토성은 1916년 일제 강점기의 고적조사시에 학계에 보고된 이후로 이렇다 할 학술조사 없이 방치되어 오다가, 1980연대에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모두 6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성곽과 성내부 시설물들은 대부분 백제에 의해 축조되고 사용된 것이지만, 토성의 서남지구 고지대에서 高句麗의 濫突建物이 조사되었으며, 고구려 토기도 다수 출토되었다.

몽촌토성에서 조사된 고구려의 온돌건물지는 토성의 서남지구 고지대의 판축대지, 장방형건물지, 적심건물지 주변에서 조사되었는데, ㄱ자형의 온돌 고래와 굴뚝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이 온돌건물지는 층위상으로 보아 이 일대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서는 온돌건물지의 범위를 3.1×3.7m 규모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온돌유구의 직접적인 범위이며, 아차산 4보루나 구의동보루의 예로 보아 이보다는 넓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은 얇은 판석으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판석을 덮은 후 점토를 발라서 마감한 구조를 하고 있다. 굴뚝은 온돌 고래의 끝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은 천석과 점토를 섞어서 원형의 굴뚝 기초를 쌓은 것으로 구의동보루의 온돌 굴뚝시설과 같은 형태이다.

1988년과 1989년의 조사를 통하여 四耳長頸甕을 비롯한 고구려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15개 기종, 329개체분에 달한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는 대부분이 泥質胎土의 흑색 또는 흑회색이 주를 이루며, 황갈색은 일부에 불과하고, 모두 물레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기종별로는 동이(大鉢)류가 가장 많고 호·옹류와 장동호류, 시루(甗)류의 순으로 대부분 일상 생활에 직접 사용되었던 것이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사이장경옹은 전형적인 고구려 중기의 양식으로 5세기 중·후반 경으로 편년된다.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고구려유적은 온돌건물지 1기에 불과하지만 출토된 고구려토기의 양으로 보아 상당한 수의 고구려 인들이 토성 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는 전체 백제토기류의 12%가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백제가 한강류역에 자리잡고 발전한 시기가 500여 년에 달하는 것과 고구려가 한강류역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기간이 80여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많은 양이다. 몽촌토성에 주둔했던 고구려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토기류의 시기 폭이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고구려의 몽촌토성 점유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출토유물의 수량은 많은 편이어서 상당한 수의 고구려 군이 몽촌토성 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 중 사이장경옹의 경우 중국 집안지방의 고구려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기종으로 실용기는 아니며, 원통형삼족기도 형태상 실용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구의동보루나 아차산보루에서는 모두 실용기가 출토되는데, 이러한 점은 몽촌토성에 거주하였던 고구려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하다. 물론 토기의 몇몇 기종을 통해 이러한 추론을 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고구려 중심지에서 주로 출토되는 의례용기가 출토되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즉, 몽촌토성에는 구의동이나 아차산 일대의 보루유적보다는 비중있는 인물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히 군사적인 성격

이외의 행정관이 파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문헌기록과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고구려 군은 백제의 蓋鹵王을 阿且城 밑에서 살해한 후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남한강류역으로 남하를 계속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몽촌토성은 한강이남의 충주일대를 확보하기 위한 中間 거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구의동보루

서울시 광진구 九宜洞에 위치하고 있는 九宜洞堡壘는 한강을 남으로 연하고 있는 해발 53m의 구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77년 발굴 당시 백제의 고분으로 추정·보고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 당시부터 구조 특장상 고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보고서에서도 일종의 군사요새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던 중 1988년과 1989년 몽촌토성의 발굴을 통해서 5세기 중엽 경으로 보이는 고구려토기 광구장경사이용을 비롯한 일련의 고구려토기들이 확인되면서, 이것이 태토나 기형에 있어서 구의동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유사함을 들어 이러한 토기를 고구려토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 구의동유적은 한강 북안에 위치한 고구려 군사요새 중의 하나라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유적의 입지를 살펴보면 주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구능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적에 올라서면 멀리 의정부의 길목에서 강남의 잠실에 이르는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유적의 서쪽에는 자양동보루가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아차산 일원의 보루들이 연결되어 있다.

유적은 원형의 성벽과 그 내부의 건물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벽 하단부의 지름은 14.8m이고 내부 건물지의 지름은 7.6m이다. 성벽은 할석을 7~8단 쌓고 그 위에 천석을 6~8단 쌓은 것이 보통인데, 가장 높은 곳은 185cm에 달한다. 한편 이 성벽의 남쪽 두 곳에 네모나게 밖으로 돌출된 곳이 있는데, 이들 돌출부는 동서로 긴 장방형을 하고 있으며, 외곽부는 할석을 3~4단 계단식으로 쌓고 내부는 흙으로 채우고 있다. 이 돌출부 시설은 한강이남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가리키고 있으며, 고구려 성곽에서 흔히 보이는 방어시설인 雉와 같은 기능을 하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건물지는 일종의 수혈주거지로 남쪽에 방형 출입구가 있다. 움집의 바닥에는 벽체를 따라 22개의 주공이 확인되었고 주공의 간격은 70~80cm로 대체로 일정하였다. 벽체는 얇은 판석을 돌려세우고 짚 따위를 섞은 흙으로 미장하였다. 수혈의 내부시설로는 배수시설과 온돌시설 및 저수시설이 있는데, 온돌시설은 수혈의 동북부에서 남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할석을 40cm 높이로 세우고 그 위에 50~80cm 가량의 판석을 덮고 짚을 섞은 흙으로 틈을 채우고 마감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 온돌의 남쪽 끝의 아궁이에는 鐵釜와 鐵壺가 걸려있었고, 온돌의 바닥에는 소토와 회백색 흙이 깔려 있었는데 이들 소토는 鐵釜와 鐵壺가 있는 곳이 가장 두껍고 북쪽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서 오래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수시설은 온돌의 골뚝 쪽에서 시작하여 서남부의 성벽쪽으로 수혈벽선을 따라 둥글게 휘어있는데, 수혈내부는 바닥의 점토를 파내고 만든 도랑 형태이지만 수혈외부는 할석과 판석을 써서 만들었으며, 성벽 밖으로 나오게 설계하였다. 저수시설은 수혈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폭 2.7m, 깊이 2.3m의 광을 파내고 바닥과 벽에 30cm 가량의 회색점토를 깔아 방수처리를 한 후 내부에 물을 저장하였다.

구의동보루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구의동

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장동호류, 호·옹류, 직구옹류, 동이(大鉢)류 등 19개 기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최소 개체수는 369개체이다. 이 중 9개 기종이 15점 이상이며 나머지 10개 기종은 5점 미만의 소량 기종이다. 토기들은 심발류 2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니질 태토로 되어 있으며, 표면색은 황갈색과 흑색, 흑회색, 회색 등이 있으나 황갈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모두 실용기로서 실제 사용된 것들이 주를 이루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6세기 이후로 편년된다.

구의동보루에서는 모두 15종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鐵鏃만 3,000여 점에 달하며, 철촉을 제외한 나머지 철기류는 53점이다. 철기류는 長刀, 鉞, 鐔, 斧, 鏃 등의 무기류와 犁, U자형鐵器(插), 鋤, 쇠스랑(鉤戈), 鑿, 鎌, 斫 등의 농공구류, 釜, 壺 등의 용기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鎌, 斫, 쇠스랑(鉤戈) 등 일부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출토된 철기류를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철촉을 제외하더라도 무기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유적의 성격과도 부합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의동보루는 고구려 군사들에 의해 축조되고 사용된 것으로 한강 북안의 높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한강 이남의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 한 눈에 조망된다. 또, 성벽 시설의 일부인 雉는 이들 두 성을 향하고 있어서 강남의 백제지역을 염두에 둔 군사시설이 분명하다. 즉, 구의동보루는 고구려의 최전방 哨所와 같은 기능을 한 군사요새로서 고구려의 남하 시에는 한강 이남의 백제지역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羅濟聯合軍의 북진 시에는 이들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저지하는 방어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3) 아차산 제4보루

峨嵯山 第4堡壘는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1997년과 1998년 구리시·구리문화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조사단에 의해 발굴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해발 285.8m의 작은 봉우리로 남북으로 뻗은 아차산 능선의 가장 북단에 해당된다. 이 봉우리는 남북으로 긴 말안장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고 양쪽 끝은 두 개의 작은 봉우리 형태를 하고 있다. 이 장타원형 지형의 둘레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경사면을 따라 3~20단의 석축 성벽을 쌓아서 보호하였으며, 정상부의 평탄지에 온돌시설을 한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성벽은 유적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자연지형의 경사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높이를 다르게 하여 정상부는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즉, 유적 중에서 자연지형이 가장 높은 남쪽은 1~2단 정도로 낮은 성벽을 쌓았으며, 가운데 경사가 급한 부분은 20여단의 석축을 쌓아 올렸다. 성벽의 규모는 남북 77m, 동서 25m, 둘레는 210m 가량 된다. 성벽을 쌓은 석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화강암을 이용하였으며, 밑에는 큰 석재를 놓고 위로 갈수록 약간씩 작은 석재를 쌓았는데, 위로 가면서 조금씩 들여쌓아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석재의 크기는 정면 폭이 20~30cm, 정면고는 15~25cm, 길이는 30~50cm 가량 된다. 성벽의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으나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의 경우 11단으로 높이는 2m 정도이며, 원래는 20단정도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높이는 4m 가량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 남서 모서리 부분과 동벽 중앙부에 사방 5m 가량 튀어나오게 쌓은 부분이 있는데, 일종의 雉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는 7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장방형의 평면을 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돌과 점토를 섞어 쌓은 담장식 벽체이며, 그 위에 맛배식 지붕이 덮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호와 3호 건물지가 특징적인데, 각각의 구조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건물지는 유적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동서 15m, 남북 8m 가량 된다. 이 건물지는 다른 건물지와는 달리 동서 방향의 장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건물들 보다 1.5m 정도 높은 위치에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지의 북쪽과 동쪽·서쪽은 석축을 쌓아 바닥 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 건물지의 남벽 중앙부는 원래 지형이 높았던 관계로 석축은 쌓지 않았으며, 벽체 바깥쪽으로 지름 20cm 가량의 기둥구멍이 남아 있다. 기둥구멍의 간격은 1m 정도이며, 일부는 남서 모서리 쪽의 석축 밖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석축 밖으로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부에는 동서 방향의 보를 받치던 초석이 1개 남아 있으며, 건물지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2기의 온돌이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지는 바닥 면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온돌 주변에서 1점의 명문토기를 포함하여 30여 점의 토기와 많은 양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이 건물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방향도 다른 건물들과 다르고 남쪽에 위치한 아차산 제3보루와 이어지는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유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호 건물지는 이 유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지인데, 동서 폭이 10m, 남북 길이가 45m 가량되는 대형건물지이다. 건물지의 네 벽은 모두 할석과 점토를 섞어서 쌓았으며, 동벽 가운데에 문을 달았던 門扉石이 1점 놓여 있어서 이곳에 주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 내부에는 중앙의 장축방향으로 기둥구멍과 초석이 배치되어 있어서 남북 방향의 보를 받치던 기둥이 세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지 내부는 다시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지는데, 온돌 시설이 있는 방 3칸과 2기의 저수시설 그리고 남쪽의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방은 크기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방형으로 면적은 50m²(약 15평) 가량 된다. 또 건물지의 동벽과 서벽 가운데에는 각각 1개씩의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한 물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호 건물지 내부의 남쪽은 별다른 시설이 없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물도 거의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강당과 같은 공공장소로 이용되었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각 건물지의 내부에는 1기 이상의 온돌이 설치되어있으며, 모두 13기의 온돌이 확인되었다. 온돌유구는 평면 형태에 따라 「ㄱ」자형과 직선형의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외고래식으로 길이 30cm, 폭 10~15cm 가량의 판석을 세워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는 역시 납작하고 긴 판석으로 뚜껑을 덮은 형태이다. 일부는 온돌 벽체의 상단부를 20cm 안팎의 할석과 점토를 섞어서 쌓은 경우도 있다. 온돌의 아궁이는 온돌 고래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아궁이 좌우에 좁은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길다란 이맛돌을 올려서 아궁이를 만들고 있다. 온돌아궁이 가운데에는 좁고 긴 돌을 세워 놓은 경우가 많은데, 아궁이에 걸린 솔의 밑바닥을 받치기 위한 시설로 생각된다. 구의동보루의 경우 온돌 아궁이에 鐵釜와 鐵壺가 걸린 채로 발굴되었으나, 아차산 4보루의 경우 아궁이에 철솔이 확인된 예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구의동보루가 갑작스런 기습으로 인하여 전멸하였던데 비해 아차산 4보루에 주둔하던 고구려 군은 아궁이의 철솔은 가

지고 철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돌 주변은 다듬어진 石材를 이용하여 방형으로 구획을 하고 있으며, 유물은 주로 방형 구획내부에서 출토된다. 이들 구획선은 석재를 1~2단 쌓은 것으로 일종의 칸막이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칸막이는 높이가 10~20cm 가량으로 강제적인 칸막이의 기능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온돌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개념적인 구획선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온돌방의 규모는 13~16평으로 구의동보루의 내부 면적과 유사하다.

저수시설은 3호 건물지 내부에만 2기가 축조되어 있다. 이들 저수시설은 북쪽의 것은 남북방향의 길이가 약간 길지만 대체로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깊이도 200cm 가량으로 깊은 편이다. 이들 유구는 암반풍화토를 수직으로 굴토하여 만들었는데, 바다에는 1m 정도, 벽체 안쪽에는 두께 50~70cm 정도의 입자가 고운 회색 뽕 흙을 발라 방수처리를 하였다. 이 중 북쪽에 위치한 1호 저수시설에는 벽체에 뽕을 채울 때 통나무를 쌓아 올린 흔적이 있어서, 저수시설이 기능할 당시에는 통나무가 벽체를 이루고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차산 4보루의 토기류는 주로 건물지 내부의 온돌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유적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자연 폐기된 상태여서 많이 파손되어 있다. 출토된 모든 토기가 고구려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태토는 고운 니질로 되어 있고, 표면색은 황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있으며,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표면은 만지면 손에 묻어날 정도로 약화되어 있다. 器種은 長胴壺類를 비롯하여, 壺·甕類, 盥類, 동이(大鉢)類, 시루(甗)類, 뚜껑(蓋)類, 耳杯類, 접시(皿)類, 直口甕類 등 고구려 중기의 대표적인 기종을 망라하고 있다. 모든 토기가 평저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壺·甕類의 경우는 밖으로 말리듯이 외반된 구연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시루나 동이류의 경우 특징적인 帶狀把手가 달려 있다. 제작기법이나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이들 토기들의 중심연대는 6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여러 점의 銘文土器가 出土되었는데, 「後□都○兄」, 「冉牟兄」, 「支都兄」, 「…下官」, 「○告」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새긴 것들이다. 이 중 앞의 3예는 모두 접시의 앞뒷면에 새겨진 것으로 「後□都○兄」은 소성 후에 새긴 것이고, 「冉牟兄」, 「支都兄」는 소성 전에 새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後□都○兄」의 「後□」는 「後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당시 고구려 수도인 平壤의 북쪽구역에 해당된다. 이를 제외하면 세 경우 모두 끝이 「兄」으로 끝나고 있어서 당시의 인명 또는 말단의 관직명으로 생각되는데, 당시의 기록에는 이러한 관직이 보이지 않아 인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구려 수도에 살고 있던 「都○兄」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파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명문자료는 몇 안되는 고구려 금석문자료로서 이들 토기를 사용하던 자의 신분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하다.

철기류는 종류별로 보면 무기류와 공구류, 용기류, 마구류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은 공구로 사용된 有孔鐵斧이다. 특히, 유공철부는 경사면에 설치된 간이대장간 시설 주변에서 30여 점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서 이 유적에서 철기의 간단한 손질이 행해졌으며, 당시의 군대에는 대장장이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기류로는 鐵鏃이 가장 많고 刀, 斧, 鐔 등이 있는데, 철촉은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늘고 긴 것으로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무기류는 유적의 규모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이며, 橫孔斧

를 제외하고는 완형으로 출토된 것이 없고 당시의 주요 무기인 鐵鎗은 출토 예가 없다. 무기류의 출토 예가 빈약한 점 역시 아차산 4보루의 폐기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차산 4보루 역시 구의동보루와 마찬가지로 5세기 중엽 남하하던 고구려 군의 전초기지로 축조되었으며, 6세기 중반에는 북진하는 나제연합군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기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차산 4보루는 구의동보루보다 규모에서 10배 이상 크며, 주둔한 군사 수도 10배 가량된다. 또한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 중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출신지와 이름을 기록한 명문토기도 다수 출토되는 등 내용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서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부대가 주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시루봉보루

시루봉보루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 7-2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1999년과 2000년 구리시·구리문화원과 서울대학교조사단의 공동기획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시루봉은 해발 205.8m의 작은 봉우리이다.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유적은 이미 인근의 군부대에서 조성한 참호에 의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었는데, 폭 2m, 총 연장 180m 정도의 참호가 조성되어 있었다. 시루봉은 서울시와 구리시의 경계를 이루는 아차산의 주 능선에서 동남쪽 한강으로 흘러내린 능선상에 위치한 봉우리이다. 유적은 남으로는 漢江, 동으로는 王宿川을 바로 바라보고 있어 강남지역과 구리시 토평동 일대의 평지가 한눈에 들어오며, 한강 북안과 왕숙천변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시루봉보루는 총 둘레 220여 미터 가량의 석축성벽이 유적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안쪽으로 성벽과 평행하게 대형 건물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자연지형을 따라 중앙부가 만곡된 타원형으로 축조하였는데, 남동쪽 성벽에는 雉가 설치되어 있다. 남서쪽의 성벽 트렌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벽의 잔존고는 1.7m이며 13단이 남아 있다. 성벽을 쌓은 석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화강암을 약간 다듬어서 사용하였는데, 석재의 크기는 다양하다. 대체로 얇은 편인데 평균 10cm 두께의 석재를 사용하였고 얇은 것은 8cm 내외에서 최고 23cm 두께의 돌을 사용하였다. 석재의 정면폭은 40~50cm이며 주로 석재의 장축이 성벽의 진행방향과 일치하게 횡평적 하였으나 곳에 따라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석재를 끼워 넣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성벽 기저부는 암반을 다듬고 이를 바닥으로 하여 석재를 쌓아올리거나, 또는 어느 정도 흙을 다져 넣어 평탄하게 한 후 쌓아 올렸다. 성벽과 대형 건물의 벽체 사이는 암반쇄설물 등을 포함한 흙으로 단단히 다졌으며 이 공간은 주거 및 취사지역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발굴조사 결과 여기서 5기의 온돌이 조사되었으며 각 온돌이 놓여 있는 지역은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소규모 공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과 외곽 석축열과의 간격은 7~9m이다. 성벽의 원래 높이는 최소한 대형 건물의 기단 높이 이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통해 추정해 보면 성벽의 높이는 3m에서 높은 곳은 4m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은 총 6기가 조사되었는데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을 통해 볼 때 모두 직선형의 평면이며 아궁이는 온돌의 장축방향과 수직이다.

배수시설은 대형건물지의 외곽으로 0.3m~0.9m 정도 떨어져서 건물지 벽체와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다. 배수로는 암반을 굴토하고 바닥에 말각장방형의 판석을 깔고, 그 옆에 판석을 세우

고 다시 위에 뚜껑을 덮은 형태이다. 개석의 크기는 평균 0.8m×0.4m이고 개석의 장축은 배수로의 방향과 직교하며 배수로 내부의 폭은 0.45m이다. 일부 지점에서는 배수로 개석 위에 온돌 시설이 축조되고 있어, 배수로를 먼저 조성하고 흙으로 평탄하게 다진 후 온돌시설을 축조하여 숙식이나 취사를 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형 건물지의 북서쪽 3호 온돌의 남쪽으로는 대형 건물지를 둘러싸고 있는 배수로와 직교하도록 축조된 배수로가 남아 있다. 이 배수로는 성벽에까지 이어져서 대형 건물지를 둘러싸고 있는 배수로를 통해 나온 물을 성벽 바깥으로 흘러 나가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수시설은 대형건물지의 가운데에 축조된 것으로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이고 규모는 남북 9.5m, 동서 6.3m이다. 장축의 방향은 대형 건물지의 장축 방향과 일치한다. 저수시설의 깊이는 3.5m로 암반을 수직으로 굴토하여 직육면체의 형태를 하고 있다. 바닥과 내부 암반 벽쪽으로 뿔흙을 붙여서 방수처리를 하였는데, 바닥의 방수층의 두께는 1.1m, 벽쪽의 두께는 1.3m이다. 내부에는 벽체의 방수토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목재를 설치한 흔적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주로 토기류로 유적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대부분 깨어진 채로 수습되었고 군부대에서 참호를 만들면서 많은 양의 토기가 유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습된 토기를 보면 고구려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태토는 고운 泥質로 되어 있고, 표면색은 황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있으며,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표면은 만지면 손에 묻어날 정도로 연질이다. 출토된 토기류의 기종은 大甕類와 壺類, 시루(甌)類, 접시(皿)類, 盥類, 長胴壺類, 동이(大鉢)類 등이며 모든 토기가 평저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루류나 동이류의 경우 특징적인 대상과수가 달려 있다. 유물이 주로 출토되는 지역은 온돌을 중심으로 한 부분으로 온돌 주변지역에서 숙식 및 취사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철기류는 약 1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무기류와 공구류로 나눌 수 있다. 무기류로는 鐵鏃과 鐵鎗, 鐵鐮 등이 있는데 철촉은 모두 가늘고 긴 柳葉形이다. 공구류로는 鐵釘과 有孔鐵斧, U자형 삽날 등이 出土되었다. 이들 토기류와 철기류는 이미 조사된 아차산 4보루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들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중심연대는 대략 6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다.

시루봉보루는 아직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양상으로 보아 아차산 4보루와 동일한 성격의 군사유적으로 확인되는데, 다만 성벽의 축조양상이나 출토유물의 양상, 유적의 입지 등으로 보아 아차산 4보루보다는 하위부대가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맺음말

발굴된 유적을 통해 볼 때 한강유역에 위치한 고구려 보루는 외곽의 석축성벽과 내부의 건물지로 구성되며, 건물지 내부에는 1기 이상의 온돌과 저수시설 및 배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온돌은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가 아니면 주위에 개념상의 구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통상 13~18평 가량되며 이 공간은 최소부대 단위가 거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의동보루에서 출토된 무기의 수를 통해 볼 때 한강유역에 주둔했던 고구려군의 최소단위부대는 10명가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보다 상급부대가 주둔했던 아차산 4보루에는 100여명이 주둔했으며, 아차산 일원에는 대

약 1,500명에서 2,000여명의 군사가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조사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관방유적의 분포상으로 볼 때 고구려의 남하경로는 대체로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개성에서 임진강 하구를 건너 關彌城(烏頭山城)을 통해 한강을 따라 서울로 직접 오는 경로인데, 지리적으로 장애물이 없고 가장 최단거리라는 장점이 있으나, 임진강하구를 도하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며, 이 경로를 따라 조사된 유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개성에서 장단을 거쳐 임진강 중류인 瓠蘆河나 七重河를 건너서 積城(七重城)을 지나 楊州 일대의 평지를 통해 中浪川이나 王宿川을 끼고 漢江北岸으로 이르는 경로이다. 이 경로와 관련해서는 많은 유적이 조사되었고, 한강 북안의 구의동 보루나 아차산 4보루가 발굴 조사되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임진강 중류의 瓠蘆河나 七重河 지점은 우기가 아니면 배를 타지 않고도 渡河가 가능하므로 이 경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鐵原에서 抱川을 지나 漢江北岸에 이르는 경로로 고구려보다는 소위 靺鞨의 주요 남하 경로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남하한 고구려군은 475년 한강을 건너 漢城을 함락시키고 夢村土城에 주둔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몽촌토성은 남한강유역으로 남진을 계속하던 고구려군의 중간 거점으로 보급이나 병력 보강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